

5성모성월

산호세한인 순교자성당 성심 성가대

주 제:	“주님의 길”	“주님 승천 대축일”	2008년 5월 4일
복음 묵상:	[마태 28,16-20]	[사도 1,1-11]	[에페 1,17-23]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버리시고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수고스럽고 때로는 나 자신을 버리는 고통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기에는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며 그분께서 얻으셨던 영광을 기쁘게 희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의 길을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지만 그분은 기다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파견된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 날 까지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길에 그분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그 길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다가가는 영광된 길이기에는 우리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군종 황재호 신부님 강론에서)

1. 성가대 소식

- 김 효식 필립보 네리 형제님 5월 2일 부터 4일간의 여정으로 동부로 가십니다. 하고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 잘 이루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합니다
- 최주남 예로니모 형제님과 최 효원도미니카 자매님 2주일간의 여정으로 한국에 여행중입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이흥진 테레사 자매님은 5월 5일 돌아올 예정으로 4월 11일 고국 방문을 떠났습니다. 여행중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님 5월 귀국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여행 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알림

- * 5월 2일(금) 성모의 밤에는 성모님께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차림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모두 한복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검정색 정장. 여자는 한복을 준비하여 7시까지 시간을 꼭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주 일요일(5/4)은 야외 미사관계로 연습은 없으나 미사시작 30분전(9:30 AM)까지 임시 미사제대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이것만은 지킵시다.

- 미리 나누어 준 예정표의 성가를 계속적으로 아침에 연습하고 있어오니, 바쁘시더라도 아침 시간을 엄수하여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 소식난은 꼭 읽어 보시고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우리의 작은 불편을 주님께 봉헌하며 환한 주님의 웃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복음 [마태 28,16-20]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뵈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1분 명상

" 용서 "

헨리 나웨은
용서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한다,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이
남아 있다,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고, 끝까지 너그러이
용서한 데 대한 칭찬을 돌려받는 쾌감을
누리고 싶은 것이다."

- 차동엽의 《무지개 원리》 중에서 -

*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나는 걸 보니 진정으로
용서한 게 아닌가 봅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잘못을 이해받고 용서받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더욱 너그러워져야겠습니다,